

Evangelism: No Need for a Tract
Thursday Morning Email Devotion for November 16, 2023

Aloha MPC ‘Ohana,

About a month ago or so, I was up at Haleiwa walking from the water to my car, when a pickup pulled up beside me in the parking lot and a voice said, “Aloha, young man.”

I get called “young man” less and less frequently these days, so needless to say, I looked up at the driver of the pickup. It was a kupuna gentleman and he was holding his hand out to me. There was a piece of paper in it.

“Here you go, young man,” he said with a smile. I took the paper from his outstretched hand. It was a gospel tract which featured a big question on the front. It said, “If you die tonight, how do you know you’ll go to heaven?” Or something like that.

“Thank you, sir,” I said. “God bless you.”

“God bless you too,” he said driving away as I got into my car.

Evangelism. In scripture, Jesus does tell all of us who are his disciples that he wants us to evangelize – to tell everyone we can the good news of the gospel (see Matthew 28:19-20, for example).

But how are we supposed to do that?

Obviously, there are lots of ideas about it. Some people use a gospel tract or brochure. Some go through neighborhoods, knocking on doors. Some go to churches which hire (expensive) expert consultants to teach them the newest and best church-based evangelism program. And many of us (myself included) find some of these approaches to be a bit intimidating. So, where does that leave us?

This coming Sunday, I’m going to be offering a one-hour Adult Sunday School class on evangelism. And with the Holy Spirit’s help and guidance, it’s my hope that during that hour which we’ll spend together, we’ll be able to see that sharing God’s good news with other people doesn’t have to be hard, scary, intimidating, or complicated.

So, let me humbly invite you, even if you’re not a Sunday School “regular,” to stick around this week between worship and the Thanksgiving Potluck, and to just come and see for yourself what evangelism might be about. I hope you’ll come. Thank you.

Me ke aloha,
Pastor Ron

전도: 전도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2023년 11월 16일 목요일 아침 이메일 묵상

알로하 MPC '오하나,

약 한 달 전쯤, 저는 할레이와(Haleiwa)에 물에서 나와 차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주차장에서 픽업트럭이 제 옆에 섰고 "알로하, 젊은이"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요즘 들어 청년이라는 호칭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말할 필요도 없이 픽업트럭의 운전사를 올려다보았다.

그것은 쿠푸나 신사였고 그는 나에게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자, 젊은이."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나는 그의 손에서 종이를 빼앗았다.

그것은 전면에 큰 질문을 담은 복음 전도지였습니다.

"오늘 밤에 죽으면 천국에 갈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아니면 그런 것.

"고마워요, 선생님." 나는 말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신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차에 타자 그는 차를 몰고 가면서 말했습니다.

복음 전도. 성경에서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인 우리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예를 들어 마태복음 28:19-20 참조).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해야 할까요?

분명히 그것에 대해 많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도지나 팸플릿을 사용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동네를 돌아다니며 문을 두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최신의 최고의 교회 기반 전도 프로그램을 가르치기 위해 (비싼) 전문 컨설턴트를 고용하는 교회에 갑니다.

그리고 우리 중 많은 사람들(나 자신 포함)은 이러한 접근 방식 중 일부가 다소 위협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로 갈까요?

이번 일요일에 저는 전도에 관한 한 시간짜리 성인 주일학교 수업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함께 보내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힘들고, 무섭고, 두려울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는 복잡합니다.

그러므로 비록 여러분이 주일학교 "정규"가 아니더라도 이번 주 예배와 추수감사절 포트럭 사이에 머물면서 전도가 무엇인지 직접 보러 오시기를 겸손히 권유합니다.

당신이 오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 알로하,

론 목사